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7(土)	28(日)
흐리고 비 21/29℃	흐리고 비 22/29℃

News

- 2012 대입 고1 내신 제외 ②
- 산악구조대 월출산 훈련 ③
- 신지에 시즌 2승 보인다 ⑭

Entertainment

- '찬란한 유산' 이승기 ⑦
- '역도 영화' '킹콩을 들다' ⑩

Wellbeing

- '물' 제대로 알고 마시자 ⑤

Books

- 정치법 재판, 승자의 게임 ⑧
- 영화 속 여인들의 보석 ⑨

신양파크호텔
여름 휴가 패키지
뷔페/양식 27,000원 부터
예약실 ☎ 228-4711-2
대표전화 ☎ 228-1009

고흥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가 보니...



고흥 나로우주센터내에 마련돼 있는 우주과학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위쪽기자 jnwi@kwangju.co.kr

우주강국 코리아 미래 속으로 '풍덩'

고흥 나로우주센터가 지난 11일 준공식을 마치고 '우주 강국 코리아'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12일에는 우주공간과 로켓 등 우주과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우주과학관이 정식 개관 되면서 자녀 동반 주말 나들이 코스로 나로우주센터가 각광받고 있다.

로켓 발사·인공위성 실제 모습 그대로 자녀들 동반 주말 나들이 코스로 '딱'

◇시민 관람 가능한 '우주과학관' 정식 개관 = 나로우주센터는 오는 7월30일 한 국형 소형위성발사체 나로호(KSLV-1)를 발사하게 되며 성공시 자력 위성 발사국 모임인 '스페이스 클럽'에 세계 10번째로 가입하게 된다. 이처럼 국내에서 우주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을 접할 수 있는 나로우주센터지만 국가보안시설인 탓에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곳은 우주과학관 뿐이다.

지난 12일 정식 개관한 우주과학관은 5만8천831㎡의 크기에 지상 2층 규모로 59종의 우주 과학 체험물과 전시품, 영상물 등이 갖춰져 있다. 또 우주과학관 정문에는 오는 7월말 우주로 발사에 예정인 '나로호'와 똑같이 만든 모형을 전시해 실제 발

사체를 가까이에서 볼 수 없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로켓·인공위성 등 신기한 체험물 '가득' = 우주과학관 1층 안내데스크를 통해 입장권을 끊고 입구에 들어가면 정면에는 큰 스크린에서 우주의 모습을 음성과 함께 보여준다. 벽면은 마치 달 표면처럼 만들어 우주에 와 있는 착각을 할 정도다. 입구를 지나 들어가면 진공과 중력, 케도원리 등 우주와 관련된 물리법칙을 소개하는 '우주의 기본원리'관이 나온다. 특히 이 주제에서는 지구와 화성, 달, 토성 등 각각 그림이 그려진 곳 바닥에 관람객이 발을 딛으면 행성의 중력에 맞는 몸무게가 산출되기도 한다.

'로켓주제관'은 로켓의 구성, 로켓개발

역사, 로켓발사체험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곳에서도 오는 7월30일께 발사되는 나로호와 유사한 발사체가 설치돼 있는데 그 주변에 서면 실제 발사될 당시의 진동과 소음을 몸으로 느껴볼 수도 있다.

'인공위성'관에서는 인공위성구조, 아리랑위성 2호, 저궤도와 정지궤도 및 위성을 이용한 지상관측 등을 볼 수 있다. 실제와 비슷한 모형 위성 등을 부푼까지 전시해 청소년들에게 좋은 과학자료 이용된다.

2층에 전시된 '우주공간'에서는 국제우주정거장의 내부 중 일부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아 우주인들의 우주정거장에서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우주과학관은 시범운영 이후 현재까지 학생들의 현장체험 방문 등 하루 평균 1천여명, 연인원 6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정식개관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한편, 우주과학관은 화~일요일 개관하며 오전 10시30분~오후 5시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관람료는 성인(19~64세)은 3천원, 청소년(8~18세)은 1천500원이며, 노약자(65세 이상)와 아동(7세 이하)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예약을 통해 단체 관람도 가능하다. 문의는 우주과학관 (061-830-8000)으로 하면 된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시국선언 교사 전원 징계

교과부, 광주·전남 9명 등 88명은 해임·정직

전교조 "2차 시국선언"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천여명 대부분을 징계하기로 하는 '초강수' 결정을 내렸다. 광주·전남에선 4천 500여명이 참여했다. 교과부는 이 중 광주·전남 9명 등 88명은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 같은 징계 수위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로,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서울 대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학생인권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지난 22일 서명에 참여한 교사 1만7천여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 바 있다.

교과부는 이 명단을 토대로 선언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88명을 추려내 해임(10명), 정직(78명)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88명 이외에 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들도 교육청을 통해 가담 수위 등을 조사한 뒤 주위,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징계 방침에 맞서 40만 교사를 상대로 한 서명운동과 '제2차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근거와 명분도 없이 권력을 남용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안법만 교과부장관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안 장관 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정섭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공무원 노조 등의 시국 선언이 예고됨에 따라 '기선제압용'으로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전설로 지다

심장마비로 돌연 사망

재기를 노리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2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돌연 사망했다. 향년 50세. 미국 언론은 잭슨이 이날 자택에서 심장박동 정지 증세를 보인 후 UCLA 메디컬 센터로 옮겨졌으나 심장마비(cardiac arrest)로 숨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LA카운티 검시소는 잭슨이 오후 2시 26분(미국 서부시간)에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으나 잭슨이 숨지기까지 상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LA 소방국 응급구조팀은 낮 12시 30분경 911 긴급구조 전화를 받고 자택 도착했을 당시 잭슨은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고, 의료진이 심폐 소생술을 시도한 뒤 UCLA 메디컬센터로 옮겨졌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관련기사 2면>

잭슨은 아동 성추행 피소와 성형수술



부작용 등 수년간 계속된 각종 추문에서 벗어나려고 지난 2개월간 LA 지역에서 다음 달 1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컴백 콘서트 시리즈를 준비 중이었다.

지난 1958년 8월 29일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에서 태어난 잭슨은 형제들로 구성된 5인조 그룹 '잭슨 파이브'의 리드 싱어로 연예계에 데뷔한 후 지난 40여년간 '빌리 진'과 '비트 잇'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팝의 황제로 군림해왔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재능을 발휘했으며 1982년 '스릴러' 앨범은 6천500만장이라는 전무후무한 판매기록을 세우며 팝의 역사를 새로 썼다. /연뉴스

대한민국 보청기의 지존성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 보청기... 지존성...
세기보청기... 보청기... 지존성...
세기보청기... 보청기... 지존성...

www.segistar.com
1588-8419 / 062-222-0100